



# JACKbook





# 참가경험자의 프로그램

일중한 어린이 동화교류 참가경험자교류회는 대학연령이된 교류회의 참가경험자를 소집하여 추억을 나눈다함께 미래로 연결되는 3개국의 교류프랜을 생각하는 목적의사업으로써 201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2002년에 일중한 어린이동화교류사업이 시작된이래 참가자 경험자는 현재 약1000여명에 달하고있습니다.

금년도의 참가경험자교류회는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토교올림픽센타와 니이가따현의 에찌고유자와에서 열렸습니다.금년도의 테마는[미노리;결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참가경험자교류회중에서 쌓아왔던것을 받아들여지금우리자신들이 가능한일들은 무엇인가? 참가경험자22명(일본10명, 한국8명, 중국4명) 이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8/17	<b>올림픽센타에 참가자 전원집합</b>	도착을하자 방에는 초등학교시절에 그렸던 그림책의 원본이!자신이 그렸던 그림과 수년만에 재회!함께 그림책을 그렸던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며 설레는 모습들도...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주시는 주체자 여러분들도 교대로 자기소개를해가며 이날은 각자의 방으로...
8/18	<b>히라따 오리자선생님의 강연 [협동과 창조의 힌트]</b>  <b>미래교류 워크숍① [생각해내자!]</b>  <b>밤에는 결단식과 환영만찬</b>	강연회를 통하여 우리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안고도 어떻게 교류를할까? 실제로 세계각지에서 연극활동을 진행하고있는 선생님의 말씀을듣고 생각할점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교류회에서 나온 생각들을 공유한결과 이번교류회가 끝나는날,3년후,5년후의 미래를 구상하였다. 자신은 어떤상태로 변해있을까? 이번엔 만난 친구들은? 참가경험자교류회는 어떻게변해있을까? 더욱이 자기의나라와 동아시아전체의 미래에관하여 자유롭게꿈을 발표하였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교류회에 긴장감이드는 모습이다. 환영만찬회에서는 코니시키씨의 컨서트로 초등학생들에게 지지않으려 우쭐대는 모습들도...
8/19	<b>토교에서 니이가따로 이동</b>	오구타다미호수의 견학을 통하여 더욱 서로의 친근감이 깊어진가운데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길바라며 밤에는 지역내의 전통예술 북연주와 반주의 감상과 우주비행사 아끼야마선생님의 강연[우주와농업~결실이란 무엇인가~]를 듣다.
8/20	<b>수확체험과 바베큐</b>  <b>미래교류 워크숍② [확인하자!]</b>	지금부터시작되는 장시간의 워크숍에 대비하여 초등학생들과 함께 야채수확의 체험과 바베큐로 기발한 아이디어를생각한다.  일본인 참가경험자 동창회가 금년에 발족을하여 어떠한 활동을하고있는지에 대하여발표. 또한 조직으로써 미숙하기는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활동에 참고가된다면하는 생각도 갖으며 진행하였다. 각국에서 수행하여주시는 선생님들께도 들려드릴 기회가 만들어졌다. 다음에 어떠한 교류를 할것인지에 관한 설정에 관한구상도 서로 그룹으로 갈라져 생각하고 발표를하였다. 그의견들을 기본으로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들을 개인적으로 내놓았다. 그결과[조직만들기][홍보][기획]의 3개의 반으로 갈라져 활동을 시작하였다.

8/21	<b>미래교류 워크숍③ [미래를 그리자!]</b>  <b>미래교류 워크숍④ [바람을 불러일으키자!]</b>	다음날에 해야할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그자료들을 각반에 나누어서 제작.  통역원들의 도움을받아 세부적인의사 확인과 내용의 번역들을 실행.점차적으로 영어와 각자가 습득한 언어로 직접 생각들을 공유하기도하였다.
8/22	<b>알프의 마을</b>  <b>[미래교류플랜] 프레젠테이션</b>  <b>반성회</b>	케이블카를타고 기분전환.젤라드 아이스크림을 먹기도하고 동물들과의 만남,선물들을 사는등 즐거움을 만끽...  일주일간의 성과를 보고 해야하기에 주최자의 이또 타다히꼬선생님을 비롯하여 수행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프레젠테이션,긴장속이었으나 우리들이 그리는 교류 플랜을 들어주시고 더욱 찬동하여주시기까지하여 커다란 자신감과 달성감을 얻을수가있었다.  즐거웠던 시간들은 순간적이였다. 밤에 시작된 반성회에서는 다가오는 헤어짐에 대한 섭섭함의 눈물들까지도 보였다.자신들의 생각을그린 미래를 실현하기,그것은 즉,재회를 의미한다. 그날을 기대하며 일주일간의 활동의 막을 내렸다.
8/23	<b>초등학생 참가자들을 향한 프레젠테이션</b>  <b>해산식</b>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안고있던 [초등학교시절에 만들었던 우정을 단절시키는일이없도록 관계를 이어나가기를바란다] 라는 생각들을 전해야하는,우리들이 일주일간 그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들을 하여왔던가에 대하여 발표를하였다. 또한,교류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하여 만든 자료도 참가자들 전원에게 전할수가 있었기에 꼭,지금부터의 교류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초등학생시절과 똑같이 [오늘은 안녕 사요나라]를 불러 헤어짐의 시간을 갖었다.나라별로 갈라져서 각각의 버스를 탄 우리들에게는 미소가 지어졌다. 재회를 맹세한일이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있었다.

### 이번에 강연을 하여주시는 강사선생님들

**히라따 오리자선생님(극작가,연출가)(참가경험자만)**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 연극가로 극단[청년단]의 리더.  
[현대구어 연극][로봇 연극]등의 새로운 도전, 연극을 교육에살려 워크숍, 한국, 중국, 프랑스등 해외와의 합동공연에 의욕적으로 시도를 하고있다.16세때에 자전거로 세계일주를 꿈꾸며 26개국을 주파. 한국연세대학에 유학경험이있음. 저서로는[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것으로부터~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무엇일까?]등.

**아끼야마 선생님(저널리스트,우주비행사)**  
TBS( 토교 방송 )에서 워싱턴 지국장 과 국제뉴스센타장등을 역임. 1990년 소련우주선 소유즈에 탑승하여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주로. 1995년에 TBS를 퇴사하고 농업일에 몸을 담고있음. 현재 교토조형예술대학 교수로써 농작업의 지도를 비롯하여 미디어론,국제정세론을 강의.저서로[괘이와 우주선]등이있음.

# 초등학생의 프로그램

초등학생들도 예년과 같이 일본, 중국, 한국으로부터 각각 33명씩 모여 계 99명의 일중한 어린이 동화교류가 열렸습니다.

긴장감과 함께모였다가 눈물과함께, 헤어짐을 아쉬워 하기까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8/17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에 참가자 전원 집합 환영인사와 참가자소개후에 반별로활동
8/18	[일본, 중국, 한국의 옛날이야기집]의 읽고듣기시간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 도서관견학 결단식, 환영만찬회
8/19	니이가따로 이동을하여 오꾸타다미호수 견학 호텔에 도착한후 전통예술의 감상과 아기야마선생의 강연
8/20	수확체험 쌀겨 저장가마 체험후 바베큐 [에찌고쯔마 아리산 현대미술관]과[화로와 타지마그림책과 나무열매의 미술관]을 견학
8/21	드디어 그림책만들기에 돌입 밤에는 비밀장기자랑대회!
8/22	그림책을 재본 케이블카로 알프마을 산책 사요나라 석식회후에 그림책 발표회
8/23	해산식



잠깐쉼터.....

## JaCKbook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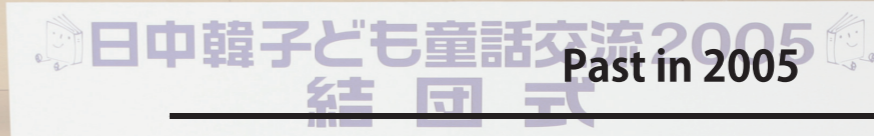
이 홍보지의 이름은 [JaCKbook]이라고합니다. 표지에도 그렇게 크게써어있습니다. 이 [JaCKbook]은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있을까요?

사실은 [Japan, China, Korea]의 머리문자로 [JaCK] 로 구성하였습니다.

즉, 일본, 중국, 한국 3개국의 홍보지 라는것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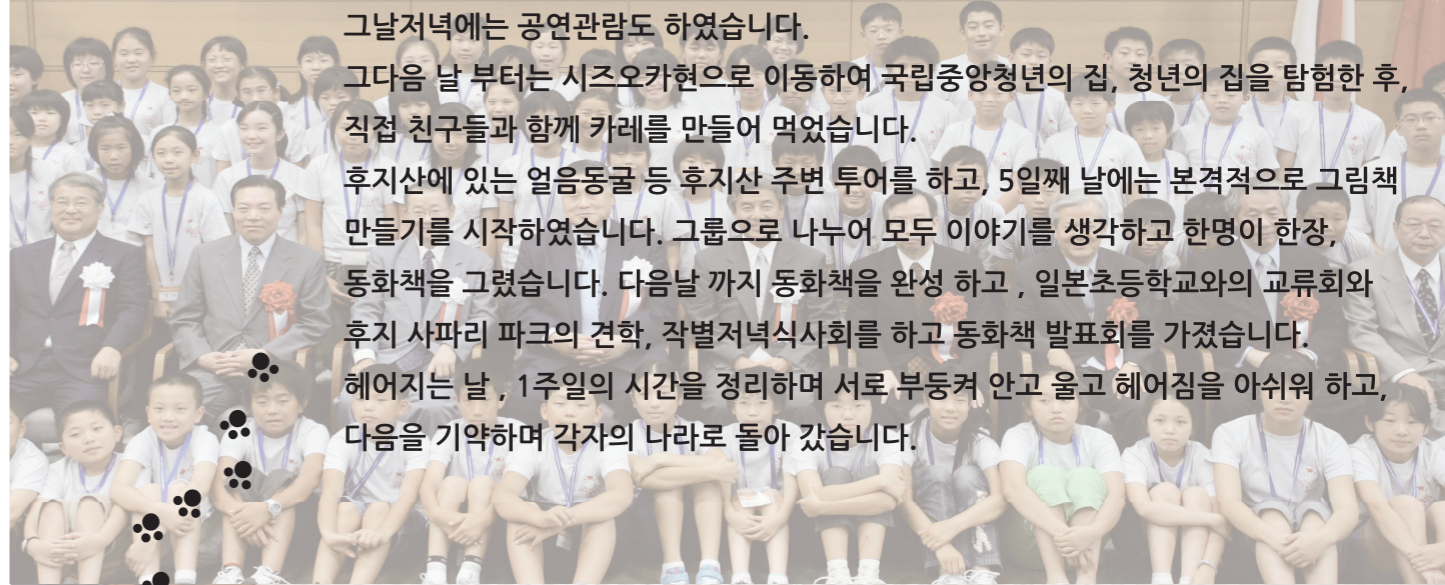
또한 [책과 콩나무]에서처럼 이야기속에서 뿌려진 씨앗이 하늘에 달을수있게 자라게 하기위하여 일중한 3개국에서 만들어낸 이 [JaCKbook]가 씨앗이되어 점점성장을하여 일중한의 우호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영원도 담겨져있습니다.

# We grew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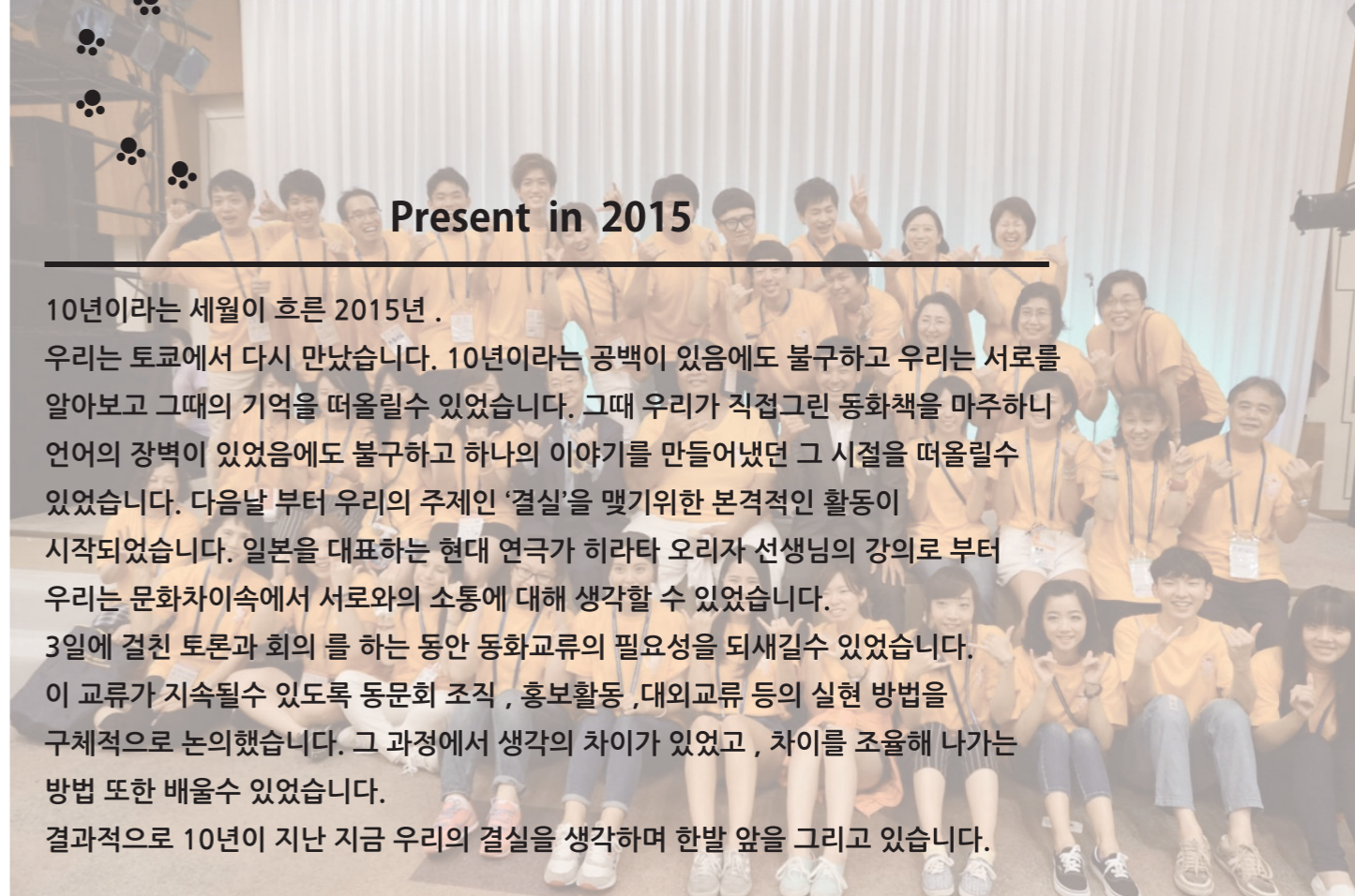
올림픽 기념 청소년 종합센터에서 함께 모여 2005년 일중한아동동화교류가 개최되었고, 결단식을 시작으로 도쿄에 위치한 국제어린이도서관을 견학하며 동화교류의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날저녁에는 공연관람도 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부터는 시즈오카현으로 이동하여 국립중앙청년의 집, 청년의 집을 탐험한 후, 직접 친구들과 함께 카레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후지산에 있는 얼음동굴 등 후지산 주변 투어를 하고, 5일째 날에는 본격적으로 그림책 만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룹으로 나누어 모두 이야기를 생각하고 한명이 한장, 동화책을 그렸습니다. 다음날 까지 동화책을 완성 하고, 일본초등학교와의 교류회와 후지 사파리 파크의 견학, 작별저녁식사회를 하고 동화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헤어지는 날, 1주일의 시간을 정리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헤어짐을 아쉬워 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각자의 나라로 돌아 갔습니다.



## Present in 2015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2015년 . 우리는 도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10년이라는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직접그린 동화책을 마주하니 언어의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그 시절을 떠올릴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부터 우리의 주제인 '결실'을 맺기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 연극가 히라타 오리자 선생님의 강의로 부터 우리는 문화차이속에서 서로와의 소통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3일에 걸친 토론과 회의 를 하는 동안 동화교류의 필요성을 되새길수 있었습니다. 이 교류가 지속될수 있도록 동문회 조직, 홍보활동, 대외교류 등의 실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고, 차이를 조율해 나가는 방법 또한 배울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결실을 생각하며 한발 앞을 그리고 있습니다.





# 2020년을 향하여



워크숍을 통하여 한사람한사람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교류를 더욱깊게 하고픈 생각이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구축하여 나가는것에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또한 강연회와 평상시의 생활을 통해 각각 어떠한 교류를 해나가고 싶은가라는 구체적인안도 떠올리기시작하고 날이 갈수록 풍부한 의견교환이 될수있게 되었습니다



미래를그리는 워크숍에서는 어학의 습득과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모두가 관전한다는등,과같은 꿈을나누었습니다. 의견을 나누는 중에 우리들은 모두,초등학교시절이후의 관계가 끊긴것에 관하여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우선은 교류를 지속할수있는것을 제1의 과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에게 같은 후회의길을 걷게하고싶지않다는 생각에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지아니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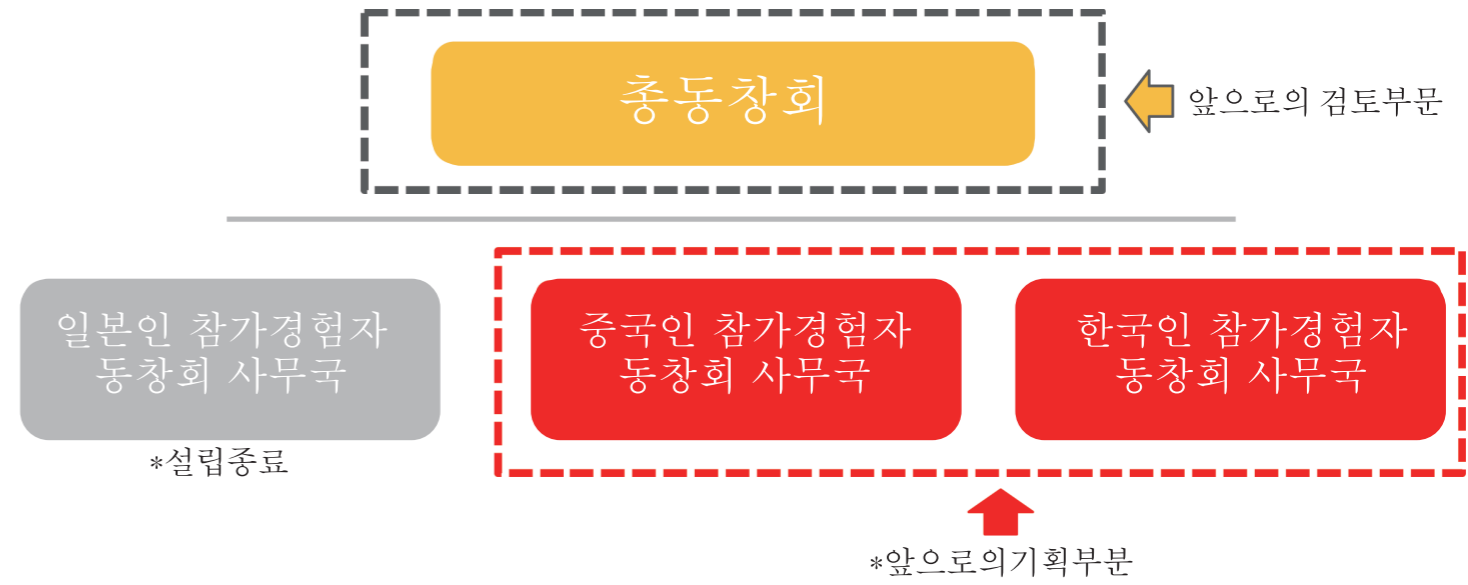
미래의 교류를 그리는중에 자연적으로 지금무엇을 할수있는가를 파악하기시작했다는것을 실감할수가있었습니다.

워크숍을 마치고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개국의 참가경험자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것이 완료되고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수있는 집단으로 되어있는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3개국에서 실제로 만나 협의가능한 기회는 한정되어있다는 현실이지만 이번 교류회에서 공유된 서로의 생각을 자국으로 갖고가서 각각이 목표로한 미래상에관하여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길것을 맹세하였습니다.



# 동창회사무국에 관하여

이번 참가경험자교류회에서 한국과 중국의 동창회 사무국설립의 발판을 만듬과 동시에 한국, 일본, 중국의 동창회 사무국을 결집한 [총동창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사무국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교류회에 참가한 후에도 연결이 될수있는 장소를 만들고싶다는 생각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사회인이 되어서라도 이연결을 계속하여 갈수있다면 정말 멋진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꼭,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가하여 주시기를바랍니다.



## 목적

### 1.참가경험자 끼리의 연락교류를 쉽게한다.

- 3개국이 공통으로 만날수있는 장소만들기
- 이벤트를 개최할때의 의견교환이 가능한 환경만들기

참가경험자와 연락이되는 플랫폼만들기  
\*지속적인 교류를위하여 기반조성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연락이 가능한 상태가된 상태에서의 3개국의 참가경험자가 모일수있는 이벤트를개최



### 2.3개국의 사이를 깊이할수있다

\*참가경험자의교류를 기초로 지속적인 교류를 해나간다.

\*교류회에 참가하지아니한 사람들도 3개국의 교류를 홍보할수있다.

\*많은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할수가있다.



